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자!

#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8호 [루게 제22960호] 주제99 (2010)년 1월 8일 (금요일)

전당, 전군, 전민이  
일심단결하여 선군의  
위력을 더 높이 떨치자!

##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일본의 저명한 식물학자 가모 모도테루가 진귀한 식물들을 선물로 보내어왔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주제 99 (2010)년 새해와 2월명절에 즈음하여 일본의 저명한 식물학자이며 이듬년 원예업자인 가모 모도테루가 진귀한 식물들을 선물로 보내어왔다. 세계적 인명화로 온 세상에 반박하는 불멸의 꽃 김장정일화와 더불어 우리 인민과 진보적인류에게 널리 알려진 그가 경애하는 장군님께 드린 선물식물들은 겨울베고니아와 열자화종종들이다. 살질로 된 풀식물인 겨울베고니아는 줄기가 곧고 둥근잎들은 어긋나 붙어 있다. 한포기에 5~6송이의 꽃들이 품종에 따라 붉은색, 노란색, 흰색 등 여러가지 색깔로 피는 이 아름다운 화초는 보는 사람들의 경탄을 자아낸다. 분포에 속하는 열자화는 사철 푸른 방망굴처럼 기나루로서 노란색의 꽃이 꽃잎처럼 보이는 3개의 꽃싸기기에 싸여있는것이 특이하다.

꽃싸기기는 길이가 2. 5cm 정도의 닭알모양이며 분홍색, 보라색, 흰색 등 그 색이 품종별로 다양하다.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친솔위인상에 꽃잎이 매혹되어 지난 시기 마더꽃, 독달나무 등 희귀한 식물들을 경애하는 장군님께 여러차례 선물로 올린 가모 모도테루는 온 세계가 우려하는 21세기의 가장 걸출한 정치인으로, 최초의 선군령에 대한 다함없는 홍보의 정을 안고 이번에 또다시 새 품종의 식물들을 보내어왔다. 혁명적대경사가 걸친 뜻깊은 올해의 정초에 중앙식물원 국제친선식물원에 부러내린 겨울베고니아와 열자화는 세계 5대목의 수많은 나라들에서 보내어 온 갖가지 선물식물들과 함께 활짝 피어나 경애하는 장군님의 위대성을 길이 전할것이다.

본사기자

##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혁명활동소식을 여러 나라에서 보도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혁명활동소식을 4일부터 6일까지의 기간에 여러 나라에서 보도하였다. 중국의 《인민일보》는 조선의 김정일최고령도자께서 근위 서술 투쟁수제 105명기사단관하 구분대를 시찰하시겠다고 하면서 그이께서는 땅크훈련모습을 보시고 모든 땅크병들이 그 어떤 대적의 침공도 단숨에 격파분쇄할수 있게 튼튼히 준비된 일당병의 용사들로 자라난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었다고 전하였다. 중국의 《인민일보》, 일본의 교도통신, 체코주체사상연구 및 주체사상연구소가 보도하였다. 체코주체사상연구 및 구현소

조와 백두산체코조선친선협회의 인터넷공동홈페이지 《조선-백두산》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새해전투로 돌고돌고 있는 재명광산을 현지지도하신 소식을 실었다. 홈페이지는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김정일령도자께서는 광산의 연혁소개를 돌아보시었다. 그이께서는 김정일주석의 손길 아래 승리와 번영의 한길에 달려온 광산의 영광스러운 발전과정을 감회깊이 추억하시고 당과 수령의 사상과 명도를 충성으로 받들어온 광산의 광부들이 해방후 새 조국건설시기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장구한 기간 불타는 애국의 일념을 안고 기쁨은 쇠돌을 제철소들에 제때에 보내줌으로써 나라의 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고 하시면서 지난 기간 그들이 이룩한 성과

본사기자

### 사설

## 공동시설과업관철을 위한 사업을 면밀히 짜고들자

다시한번 경공업과 농업에 박차를 가하여 인민생활에서 결정적전환을 이룩할데 대하여 호소한 새해공동시설을 끝내는 경속속에 받아안은 우리 인민의 혁명적열의는 하늘을 찌를듯이 높다. 새해 정초부터 연일 빨치산강행군을 단행하시며 강성대국건설대전을 진두에서 이끄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현지지도소식은 천만민들의 심장을 끝없이 격동시키고 있다. 2012년에 강성대국대문을 열기 위한 우리의 투쟁이 승리의 마지마주에 들어서고 더 높이 비약할 총진군의 설계도가 펼쳐진 지금 각급 당조직들과 일군들앞에는 공동시설과업관철을 위한 작전과 조직사업을 혁신적안목을 가지고 치밀하게 짜고들어야 할 책임적인 과업이 나서고 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인민대중의 높은 정신력에 일군들의 힘있는 정치사업, 면밀한 경제조직사업을 확고히 안팎잡한다면 강성대국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전례없는 대혁신, 대비약이 일어나게 될것입니다.》 치밀한 조직사업은 모든 사업에서 성과를 이룩하기 위한 첫 켜목이다. 인민대중의 높은 정신력에 면밀한 조직사업이 따라설 때 어디서나 커다란 비약과 혁신이 일어나게 된다. 지난해에 각급 당조직들과 일군들은 당의 의도에 맞게 150일전투와 100일전투조직사업을 빈틈없이 짜고들으며 대중의 사상정신력을 활화산처럼 분출시켜 우리의 대고투쟁에서 가장 빛나는 한계점을 이룩하였으며 제국주의자들의 압살책동을 갈음마다 깃부서 강성대국에 오ടു주어오는 선군조선의 위력을 힘있게 과시하였다. 당창건 65돐을 맞는 올해에 우리 당은 다시한번 경공업과 농업에

박차를 가하여 인민생활에서 결정적전환을 이룩할데 대하여 호소하였다. 혁명적대고조의 위대한 승리와 성과에 토대하여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전당적, 전국각적인 총공세를 드 세차게 벌임으로써 당을 따라 간고한 시련을 헤쳐온 우리 인민이 사회주의의 부를 마음껏 누리게 하는것이 우리 당의 확고부동한 결심이고 의지이다. 올해를 인민의 행복이 넘쳐나는 번영의 해로 되게 하기 위한 장엄한 투쟁은 시작되었으며 그 승리의 열쇠는 당조직들과 일군들이 쥐고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온 나라의 방방곡곡을 찾아 끊임없는 현지지도의 길을 걸으시면서 당조직들과 일군들이 오늘의 대고투쟁을 위한 투쟁을 어떻게 작전하고 설계하며 조직지휘해나가야 하는가에 대하여 면밀히 밝혀주시었다. 각급 당조직들과 일군들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가르쳐주시고 모범을 보여주시는 혁명적이며 진취적인 사업방법을 구현하여 모든 조직사업을 면밀히 짜고들도록 올해에 경공업혁명, 농업혁명 전례없는 대혁신, 대비약이 일어나게 될것이다. 경공업과 농업은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투쟁의 주공전선이다. 경공업과 농업부문에 대고투쟁의 기발함과 인민들의 행복을 생활이 꽃피고 온 나라가 흥성거리게 되며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의 우월성이 더욱 힘있게 과시되게 된다. 경공업과 농업부문의 당조직들과 일군들은 공동시설과업관철을 위한 투쟁에서 자기들이 맡고있는 무거운 사명감을 깊이 자각하고 올 해전투조직을 짜고들어 인민생활을 결정적으로 높여나가는 당의 구상을 위하여 투쟁성과와 경험을 구체적으로 분석한데 기초하여 경공업혁명과 농업혁명의 불길은 더욱 세차게 지퍼울릴 대담한 목표를 내세우고 조직사업을 면밀히 짜고들으로써 인민소득과 알곡생산에 결정적으로 높여야 한다. 올해에 인민생활에서 결정적전환을 이룩하자면 경공업과 농업과 편 관련 부문들에서도 작전과 조직사업을 당의 의도에 맞게 잘하여야 한다. 우리 당의 인민생활제일주의구호는 결코 경공업과 농업부문에만 국한되는 구호가 아니다. 우리 당은 올해 공동시설에서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전당적, 전국각적인 총공세를 힘있게 벌임에 대하여 호소하였다. 모든 부문의 당조직들과 일군들은 당의 뜻을 높이 받들고 올해전투의 작전과 조직사업을 철두철미 인민들의 생활을 높이기 위한 투쟁으로 지향시키고 일관시켜야 한다. 화학교업과 채취공업을 비롯한 인민생활과 관련된 부문들에서 높은 생산적양상을 이룩할수 있게 전투조직을 짜고들어야 한다. 금속공업과 전력공업, 석탄공업과 철도운수부문 일군들은 인민생활향상을 굳건히 담보하는 밑뿌리가 될것을 바라는 당의 의도를 깊이 명심하고 인민생활을 높이기 위한 오늘의 총공세를 힘있게 떠밀어나가야 한다. 올해전투를 설계하고 작전하는데서 자력갱생의 원칙을 구현하는것이 매우 중요하다. 올해에도 우리는 많은 난관을 이겨 내며 생산과 건설에서 비약의 폭풍을 일으켜야 한다. 제국주의자들의 반공화국책동이 강화되고 모든것이 부족한 조건에서 우리는 인민생활을 높이기 위한 총공세를 벌려야 한다. 우리 인민은 민족자존의 정신력,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이 투철한 인민이다. 각급 당조직들과 일군들은

## 당창건 65돐을 높은 정치적열의와 빛나는 로력적성으로 맞이하자!

### 당의 령도따라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총공세를 힘있게 벌려나가자

#### 황해남도, 함경남도, 량강도군중대회 진행

올해공동시설에 제시된 전투적과업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황해남도, 함경남도, 량강도군중대회가 5일과 6일에 진행되었다. 군중대회들은 지방당, 정권, 경제기관, 근로단체책임일군들, 각계층 근로자들과, 청년학생들이 참가하였다. 황해남도에서 황해남도군중대회에서는 김락희 도당위원회 책임비서의 보고에 이어 해주시발광장 지보인 정호봉, 안악군 오국협동농장 관리위원장 황윤남, 해주시청년동맹위원회 1부서 강상우, 해주시대학 부학장 박성학이 토론하였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올해공동시설을 피뎌는 심장마다에 받아안은 도내 당원들과 근로자들에 위대한 당의 령도따라 창조와 비약의 열풍을 일으켜 강성대국건설에서 영웅적인민의 혁명적기상을 단련하여 펼쳐갈 불타는 열의에 충만되어 있다고 말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자기 힘에 대한 확신, 자원을 믿고 펼쳐나서

수양산종합식료공장, 해주전지공장을 비롯한 경공업공장의 현대화, 정보화를 실현하여 인민들의 호평을 받는 소비품들을 대대적으로 생산하며 점차적대대건설을 다그쳐 끝낼것이라고 그들은 말하였다. 그들은 재명광산, 은골광산 등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이 혁명적대고조의 기세드높이 질풍같이 내달려 인민생활향상을 굳건히 담보해나갈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도의 당조직들과 일군들은 화선시정치사업으로 대중을 경제강국건설에 힘있게 불러일으켜 사회주의전투장마다에 총동원되는 불타는 세차게 물이치게 하여야 할것이라고 그들은 말하였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정초에 재명광산을 찾았으며 이곳 로동계급을 고무하여주신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높은 뜻을 받들고 올해의 장엄한 전군건설에 애국의 열정을 남김없이 폭발시키도록 자랑찬 로력적성과를 올리고 10월의 대축전장에 멋있게 들어설것이라고 강조하였다. 함경남도에서 함경남도군중대회에서는 태중주 도당위원회 책임비서의

보고에 이어 2. 8비날론연합기업소 지배인 장명화, 함주군 추상협동농장 관리위원장 리희숙, 도청년동맹위원회 1부서 한인철, 흥남비료연합기업소 실장 김윤호가 토론하였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올해공동시설은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선군혁명령도따라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어 제기기 위하여 새로운 기적과 위훈을 창조해나가고 고무추동하는 전투적기치이라고 강조하였다. 그들은 인민의 행복을 위해 강행군길을 이어가시는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지난 한해동안에만도 함경남도를 여러차례 찾으신고 나아갈 길을 환히 밝혀주시었다고 말하였다.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경애하는 장군님의 부강조국건설기상을 받들고 일터마다에서 높은 생산적양상을 일으킴으로써 당창건 65돐을 맞는 뜻깊은 올해에 인민생활에서 결정적전환을 이룩할데 대하여 그들은 언급하였다. 그들은 혁명적대고조의 불길은 세차게 일으며 경공업공장에서 인민소비품의 질을 결정적으로 높이며 백운산종합식료공장을 비롯한 지방공업공

### 혁명적대고조시대를 빛내여나가는 청년영웅이 되자

#### 청년전위들의 쫓기모임 진행

올해공동시설에 제시된 전투적과업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청년전위들의 쫓기모임이 7일 청년공원야외극장에서 진행되었다. 모임장소에는 당창건 65돐을 맞는 올해를 강성대국건설에서 특기할 대번혁의 해로 빛내이기 위한 장엄한 전군건설에서 희고사평면의 예비전투대, 별동대의 위력을 남김없이 펼쳐갈 청년전위들의 남김과 의지가 차 넘쳐있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김중진동지와 김용진교수장, 판계부부 일군들, 청년동맹일군들, 평양시내 청년학생들이 모임에 참가하였다. 모임에서는 리용철 청년동맹중앙위원회 1부서의 보고에 이어 평양방직공장 직포공 문강순, 대성구역 대성협동농장농장 김옥경, 김일성종합대학 학생 김선일, 리서기 김기영이 토론하였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올해에 다시한번 경공업과 농업에 박

차를 가하여 인민생활에서 결정적전환을 이룩할데 대한 당 창건, 청년들의 공동시설을 받아안은 온 나라 청년들이 공동시설에 제시된 전투적과업을 철저히 관철해나갈 불타는 열의에 넘쳐있다고 말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청년들은 우리 사회의 가장 활력있는 부대이며 혁명적대고조의 돌격대입니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올해의 총적인 투쟁방향은 인민생활향상에서 결정적전환을 가져오는것이라고 하면서 청년들이 인민들의 호평을 받는 여러가지 생활필수품생산과 농업의 혁명적관철을 앞장설데 대하여 말하였다. 그들은 금속, 전력, 석탄공업과 철도운수부문의 전투장마다에서 청년들이 선봉적역할을 하도록 대대적으로 호소하였다. 그들은 《당이 결심하면 우리는 한다!》는 구호를 삼파 투쟁의 좌우명으로 삼고 청년들이 경제강국건설의 가장 어렵고 힘든 전선들에서 전격의 돌파구를 열어나가는 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청년들이 사회주의조국을 철옹성같이 지키고 군사를 성실히 배우며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 뛰어들어 불멸의 영웅이 되도록 하는데 기여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들은 각급 청년동맹조직들의 전투적기능과 역할을 높여 청년들이 불멸의 위훈으로 대고조시대를 빛내어나가는 청년영웅, 유능한 청년전체가 되도록 하는데 기여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계시어 우리의 승리는 확정적이라고 하면서 모든 청년들이 혁명의 수뇌부위에 굳게 뭉쳐 강성대국건설과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더욱 역세 싸워나갈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모임에서는 결의문이 채택되었다. 【조선중앙통신】

평양시의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당창건 65돐을 맞는 올해에 다시한번 경공업과 농업에 박차를 가하여 인민생활에서 결정적전환을 이룩할데 대한 공동시설의 전투적과업을 받들고 한사람같이 떨쳐나가는 과제를 모아 천리마제강련합기업소에 보내주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석탄과 철강재생산을 주체사상기 위한 강한 국가적대책을 세우며 이 부문을 당적으로 힘있게 밀어주어야 합니다.》 시당위원회에서는 승리의 신심드높이 강철생산투쟁을 벌리고있는 강선의 로동계급을 힘

### 천리마제강련합기업소를 적극 지원

있게 지원하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짜고들었다. 시당위원회의 지도밑에 시인민위원회의 해당 부서 일군들과 정무원들은 앞장서서 많은 량의 파철을 모아들이는 한편 구역, 군들과 동, 인민반들에 내려가 철강재생산을 높이는 것이 인민생활문제를 풀기 위한 관건적고리라는것을 깊이 해설해주며 파철원천을 찾아주도록 그것을 운반하는 데서 제기되는 문제들도 풀어 주었다. 그리하여 시에서는 군중적으로 짧은 기간에 많은 파철을

### 평양시에서

모아들이기 위한 사업이 힘있게 벌어졌다. 파철모으기에서는 시인민위원회를 비롯한 시급기관들과 시교구역, 평천구역, 서성구역, 대동강구역, 동대원구역, 중구역, 형제산구역안의 기관, 기업소와 동, 인민반의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모범을 보이였다. 선교구역에서는 당창건 65돐을 맞는 올해에 자랑찬 로력적성물을 올리고 10월의 대축전장에 들어설 일념으로 일군들이 공장, 기업소, 동, 인민반들에 내려가 새해공동시설의 사상과 정신을

### 2면으로 계속

는 설비들을 대담하게 폐기하고 예비를 적극 탐구하면서 많은 파철을 마련하였다. 김일성종합대학을 비롯한 시안의 대학들에서도 당창건 65돐을 강철중산으로 빛내기 위해 힘찬 투쟁을 벌리고있는 천리마제강련합기업소의 로동계급을 적극 지원할 열의에 한사람같이 떨쳐나가는 과제를 마련하였다. 파철수집사업은 중화군과 사동구역에 비롯한 시주변 구역, 군들에서도 힘있게 벌어졌다. 1월 5일, 평양시에서는 수백대의 화물자동차에 많은 량의 파철을 실어 천리마제강련합기업소에 보내주었다. 특파기자 최재남



공동시설에 제시된 전투적과업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하여 배수리를 힘있게 단그치고있다. - 평남배수리공장에서 - 본사기자 리명일 찍음

정론

향도의당을위해!

조선의 앞날은 휘황찬란하다. 우주로 돌진하는 《은하-2호》로켓의 다계단도약처럼, 우리의 철갑상어가 망망대해를 헤가르며 나아가듯이 조국은 팽창한 미래로 무섭게 내달린다. 천만가지 행복이 인민에게 안겨질 사회주의 만민세의 해, 어머니당의 해인 2010년, 그 첫걸음이 시작된 이 땅은 희망으로 한껏 부풀고 격동으로 뜨겁게 달아있다.

동무여, 노래를 부르자. 승리의 언덕에 높이도 올라 또 높이 솟아오르는 이 조선의 총천한 기세를 안고 축배의 노래, 광만의 노래를 부르자.

한마음한뜻으로 붉은기를 지닌 위대한 인민을 위해, 총대를 높이 들고 조국을 지킨 향도의 당을 위해 기쁨의 축배, 맹세의 축배를 들자.

승자는 축배를 들고 패자는 고배를 든다. 우리는 승리하고있다. 우리는 또한 보다 강대하고 보다 훌륭해질 때일에 대한 확신을 안고 희망의 축배를 든다.

강산은 흰눈에 덮였어도 우리의 가슴엔 오희백과 무르익고 축포가 터져오를 10월, 10월이 설레인다.

선군의 기치드높이 등대마냥 인민의 앞길을 밝히고 기관차마냥 혁명을 이끌며 승리와 영광만을 떨쳐온 강철의 당.

지구상에 돌도 없는 위대한 당이 자기의 창건 65년을 맞는 뜻깊은 이해, 향도의 빛날이라는 그 부름과 함께 강대한 조국앞에 무궁변영할 미래가 더 눈부시게 열려질 이해의 첫 기술에서 우리가 부르는 노래는 승리의 노래, 행복의 노래이다.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우리의 앞길은 광활하고 우리의 미래는 찬란합니다.》

향도의 당은 우리의 영광, 우리의 찬란한 미래이다. 우리 당의 향도는 시대와 혁명을 이끌 어온 승리의 역사인 동시에 오늘과 후손 만대를 내다보며 미래를 열어가는 희망의 빛발이다.

마지막과 낫과 붓을 붉은기에 새기고 총대를 만능의 보검으로 틀어잡은 우리 당은 아버지수령님을 따라 승리와 영광의 천만리를 걸어왔고 위대한 장군님을 따라 조국변영의 새시대를 끝없이 펼쳐왔다.

우리의 추억은 소중하다.

아버 이수령님께서 개척하신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계승완성해나갈 풍남산의 맹세를 안고 주체의 향도성으로 시대앞에, 인민앞에 나서시었던 우리의 김정일동지.

《영광스러운 당중앙》이라는 전인민적 인 흥모와 신뢰의 부름과 더불어 주체조선의 일대 전성기가 펼쳐지고 생기발랄하고 휘황찬란한 로동당시대의 번영이 꽃피었던 1970년대를 우리는 잊지 못한다.

우리 수령님께서 얼마나 기쁘고 만족하시었으면 멀리 외국방문의 길에서 노을을 헤치고 솟아오르는 붉은 해를 바라보시면서 《김정일동지는 저 하늘의 태양이요》라고 격정에 넘쳐 말씀하시었으랴.

창조와 건설로 들끓는 조국의 벼간 현실을 보실 때면 일군들에게 초기혁명활동 시기 청년공산주의자들은 나를 보고 태양이라고 불렀는데 오늘 우리 인민은 김정일동지를 향도의 태양이라고 높이 칭송하고있습니다. 향도의 태양이 빛나는 조선의 앞날은 참으로 밝고 창창합니다라고 그러도 뜨겁게 말씀하신 우리 수령님.

조선을 빛내이며 당을 이끄신 우리 장군님의 향도는 인민을 울리고 후손만대를 울리는 숭엄한 총정의 역사로 빛난다.

오직 한마음 수령님을 위하여! 위대한 장군님의 혁명생애에 피줄기처럼 관통하고있는 이 신조는 곧 오직 한마음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이고 오직 한마음 미래를 위하여!였음을 우리 얼마나 가슴치게 절감하였던가.

피눈물의 바다에서 수령님령전에 다진 맹세를 지켜 사회주의조국을 수호하시고 강성대국으로의 세계적인 전환을 안아 오신 우리 장군님.

5,000년민족사가 놀라고 세계가 쳐다본 2009년의 대변혁을 이룩하신 그 환희의 순간들마다에도 수령님생각이 너무 간절하시어 목메어 수령님, 수령님을 찾고찾으신 그이이시다.

10월의 밤하늘에 승리의 축포를 쏘아 올리고 돌아오시는 길에 금수산기념궁전 앞에 이르시어 잠시 차를 세우신 우리 장군님께서는 《수령님, 임무를 수행하였 습니다.》라고 정중히 보고올리시고 북한 쳐오르는 천만가지 생각에 잠기시어 격한

심정을 금치 못해하시었다.

오늘도 수령님을 생전의 모습으로 몸가까이 모시고 언제나 수령님과 함께 살며 사업하시는 우리 장군님, 수령님, 임무를 수행하였습니다!

하늘도 머리속일 위대한 총정이 마더마디에 울리는 이 숭엄한 심장의 대화에는 한 시대, 한 역사의 무게가 실려있었다.

작고 힘이 약했던 조선을 천하무적의 강대국으로 세계앞에 우뚝 올려세우시고 고난을 이겨낸 이 땅위에 사회주의부귀영화, 강성대국지상락원을 펼쳐주시고 선군조국의 휘황찬란한 미래도 환희 열어 주시어 아버지수령님의 리상을 위대한 현실로 꽃피우신 커다란 기쁨과 환희가 얼마나 뜨겁게 어려있는가.

그이의 강령권선만리는 그 한자옥한자 옥이 이런 총정의 천만리, 결사천신의 천만리이다.

아버 이수령님께서 남기고 가신 그 사연 깊은 지평이를 마음속에 새겨두시고 눈보라강행군, 삼복칠강행군, 심야강행군으로 지난 한해만도 10만여리의 현지도 길을 이어가신 위대한 장군님을 우러르면 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했던가.

인민들을 하루빨리 잘살게 하는것은 아버지수령님의 리상을 실현하는것이라고 하시면서 경공업과 농업이라는 두개 전선에 희망의 화살표를 그어주시고 《모든것을 인민생활향상을 위하여!》라는 구호를 대고조의 기발로 추켜드신 우리의 아버지 김정일동지.

당이 자기의 소원을 풀고 인민들이 진짜 사회주의혜택이 어떤것인가를 마음껏 느끼게 하려는 결심을 안으시고 정초부터 눈보라치는 최첨발전조선설장을 찾으시어 군인건설자들에게 손저어 고무와 격려도 보내주신 장군님모습을 뵈으면서 어쩌하여 온 나라 인민은 그러도 뜨거운 격정의 눈물을 쏟았던가.

자나깨나 아버지수령님만을 생각하고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가시는 우리 장군님의 이 지극한 총정과 헌신의 력사속에 변이 나는 오늘이 있고 또한 휘황찬란한 조선의 앞날이 있다.

장자만이 머리를 높이 들고 미래를 내다볼수 있다. 후손만대를 책임지는 향도는 무한대한 힘에 의하여 담보된다.

군대이자 당이고 국가이며 인민이다.

총대우에 향도의 당이 있고 강성대국의 만년대개가 있다.

백두산총대에서 우리 당의 튼튼한 뿌리가 내리고 주체혁명의 명맥이 굳건히 이어졌다.

력사는 주먹을 높이 들어 피의 교훈을 왜친다.

그 어떤 주의주장만으로 모인 당, 혁명의 허울을 쓴 행세군이나 양복쟁이신사들이 만들어낸 당은 반혁명의 도전앞에 물먹은 담벽처럼 무너져버릴수밖에 없었다.

정의 총검을 억세게 틀어쥐고 백두산악에 혁명의 뿌리를 박은 위대한 우리 당만이 때지어 물려드는 제국주의령강들도 물리치고 별의별 천지풍파도 끄떡없이 이겨냈다.

크지 않은 조선, 그러나 강성대국으로 세계앞에 선 나라.

이런 당, 이런 국가, 이런 인민은 반드시 선군의 총대와 무적의 군력에 의해서만 자기의 존엄과 승리를 떨칠수 있고 광명한 미래를 열어나갈수 있다.

피와 목숨을 내대는 최고의 애국정신의 결정체인 총대!

총대의 신념, 총대의 의지로 무한대의 힘을 발휘하는 향도만이 인민의 운명을 철저히 책임질수 있으며 또 그런 향도만을 인민이 절대적으로 믿고 진정으로 따를수 있다.

우리 장군님께서서는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선포도 군대를 믿고 하시였으며 아버지수령님으로부터 다른 그 무엇에 앞서 최고사령관의 총책을 넘겨받으시였고 대고조로 세계적인 변혁을 일으키는 오늘도 선군의 기치를 더 높이 들고 계신다.

우리의 용감한 군위병들이 백두령정의 축복을 받으며 승리의 축배, 영광의 축배를 들었다.

대고조 첫째인 2009년의 총공격전을 시작하시면서도 근위 서울류경수 제105땅크사단을 찾으시였던 우리 장군님께서서는 인민생활향상에서 큰 변이 나게 될 이해의 정초에도 또다시 직진을 무자비하게 짓통개버리며 노도치는 땅크사단의 위력시위를 보여주시면서 선군의 힘으로 또다시 승리하자는 뜨거운 호소를 천만군민에게 하시었다.

지속을 울리며 산악을 날아오르는 파갈

한 용맹과 질풍속도에서 우리는 한다고

하면 상상도 할수 없는 무서운 힘을 폭발할수 있다는 철의 선언과 백두산총대는 빈말을 모른다, 조선이 없다면 지구도 없다는 백두산호랑이의 담대한 배짱으로 세계를 굽어보며 미래로 나아가는 조선의 발걸음소리를 들었다.

나는 어떤 역경속에서도 가야 할 길을 피하지도 예돌지도 않는다. 나의 원칙은 확고하고 신념은 드림이 없으며 논리는 정연하다. 우리에게는 수령님의 법이 있고 수령님의 식이 있으며 정의와 진리는 우리의 것이다. ...

이것이 바로 천출명장이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필승의 신념, 불굴의 의지이고 천년만년 변함없을 백두산과줄기, 백두산총대의 혁명철학이다.

1월의 명마루에서 10월의 축포를 그러고도 2012년의 승리, 후손만대를 내다보는 우리에게는 장군남아의 포부와 애국정신이 가슴벅차게 안겨온다.

조선은 나의것이라는 고귀한 지론을 소중한 간직하시고 위대한 선군사상을 불멸의 가치로 틀어쥐고나가는 필승의 기상, 한없이 귀중한 조국을 지켜 내 한생 총잡고 전호에 살리라는 노래를 언제나 부르며 혁명의 천만리길을 억세게 걸어가는 그 총정과 애국의 자욱마다에서 백두산총대력사의 줄기찬 흐름을 본다.

인간의 리상과 아름다움이 선군조선의 밤하늘에 얼마나 황홀하게 펼쳐졌던가.

변이 난 지난해에 대동강만에 터져올랐던 이 세상에서 제일 회한하고 장쾌한 불보라, 꽃보라인 축포의 대시위는 향도의 당을 따라 우리의 앞날이 장차 어떻게 밝아오고 부강조국의 무궁변영이 얼마나 흐릿할것인가를 알게 하는 민족사적인 대경사였다.

참으로 사연많은 추억과 성스러운 력사로 이어져온 우리의 길이다.

남산의 저 푸른 소나무가 눈서리에 파묻혀서 천신만고 괴롭받다가 양춘을 다시 만나 소생할줄을 동무야 알겠느냐는 《지원》의 뜻으로부터 조선이 독립하지 않으면 다시 돌아오지 않으리라는 그 잊을수 없는 압록강의 맹세를 거쳐 조선이 너를 빛내리, 너를 떨치리라는 풍남산의 위대한 포부에 이르기까지 정녕 얼마나 간고하고도 영광스러운 혁명의 년대들이

흘러왔는가.

세계를 둘러보고 력사의 갈피를 번져보라. 그 어디에 이런 나라, 이런 혁명이 있어보았는가.

개혁의 첫걸음부터 땀대를 잇고 세계를 넘어오면서 자기의 숭고한 리념과 목적을 단 한번도 흐트린적이 없 순결하게, 굳건하게 지켜오고 추호의 동요나 우여곡절을 모르고 끊임없이 빛나는 승리와 번영만을 이룩해온 조선혁명.

이것은 이 지구상에서 우리만이 말할수 있는 혁명적자부심이며 그 무엇에도 비길수 없는 우리의 위대한 힘이다.

이 하나의 사실만 가지고도 조선은 강성대국이라고 당당히 선언할수 있으며 이런 당, 이런 인민은 마땅히 세계가 부러워하고 우러러보아야 할것이다.

넓은 영토와 억대의 재부를 가지고있는 것도 좋다.

그러나 이 모든것보다 몇천배로 더 귀중한것은 인민이 자기 운명을 맡길수 있고 민족이 자기의 앞날을 의탁할수 있는 위대한 수령을 모시고 향도의 당을 가지는데 있다.

우리에게는 저 하늘의 태양처럼 인민을 한몸에 안아주시고 그 어떤 대적도 이기고 그 어떤 천만가지 행복도 다 꽃피워주시는 무적필승의 령장이신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계신다.

우리 장군님께서서는 강성대국의 대문이 열리는 대격변의 오늘과 사회주의무풍도 원으로 세계의 머리우에 높이높이 떠오를 이 나라의 휘황한 전도를 내다보시면서 우리의 가슴에 불멸의 금언으로 새겨 주시었다.

자기 땅에 발붙이고 눈을 세계를 보라! 위대한 당, 김정일조선을 세계가 우러러보게 하라!

철세의 애국자, 민족의 아버지의 이 위대한 뜻이 그대로 맥박치는 조선의 기상, 석석한 발걸음소리와 더불어 내 나라, 내 조국땅위에 부강변영의 새시대를 찬란히 펼쳐갈 향도의 빛발이 누리에 차넘친다.

동무여, 노래를 부르자. 향도의 당을 위해 축배를 들자.

위대한 태양의 모습, 백두령정의 모습으로 찬란할 조선의 무궁변영한 미래를 위하여 축배, 축배를 들자.

동태관



향도의 당을 따라 휘황찬란한 미래를 펼쳐가는 선군조선의 밤하늘에 축포가 터져오른다.

1 면에서 계속 량강도에서

량강도군중대회에서는 김희택 도당위원회 책임비서의 보고에 이어 해산방직공장 지배인 김영, 백암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 위원장 장병관, 도청년동맹위원회 1비서 장명호, 량강공업대학 과장 박철이 토론하였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위대한 헌신으로 지난해를 강성대국건설에서 분수령을 이루는 력사

적인 해로 빛내이신 경에하는 김정일동지의 거룩한 업적은 조국청사에 영원불멸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그들은 도내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절세위인들의 불멸의 업적이 깃들어있는 영광의 땅에서 살며 일하는 한없는 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올해공동사실에서 제시된 전투적과업을 철저히 관철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해산방직공장, 해산신발공장, 청봉종합식료공장 등 경공업공장들에서 현대화를 높은 수준

에서 실현하며 갖가지 소비품생산을 대대적으로 늘여 할것이라고 그들은 말하였다.

그들은 농업근로자들은 당의 종자혁명방침, 감자농사혁명방침을 철저히 관철하여 인민들의 먹는 문제를 푸는데 이바지하여 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이미 실천을 통하여 그 우월성이 뚜렷이 확증된 과학농법을 받아들여 대흥단군, 백암군, 삼지연군을 비롯한 도내 군들에서 통장훈을 부를데 대하여 그들은 언급하였다.

산악도 떠돌길 불라는 열정을 안고 발전조선건설을 비롯한 어렵고 힘든 전투장소에서 위훈을 세워나가야 할것이라고 그들은 말하였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혁명의 수뇌부뒤에 굳게 뭉쳐 강성대국건설과 주체혁명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억세게 싸워나갈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군중대회들에서는 결의문이 채택되었다. 【조선중앙통신】

불멸의 선군령도업적을 깊이 체득시켜

피일군 연광농장 초급당위원회에서는 당원들과 농업근로자들속에 경애하는 장군님의 불멸의 선군령도업적을 깊이 체득시키기 위한 위대성교양사업을 실속있게 진행하고있다.

초급당위원회에서는 우선 당세포들과 근로단체조직들에서 경애하는 장군님의 선군혁명령도의 위대성자료들을 충분히 갖추어놓고 그를 통한 교양사업을 잘해나가도록 하고있다. 그리고 일군들이 당원들과 농업근로자들속에 들어가

이야기하였다. 이날의 해설모임을 통하여 이곳 당원들과 농업근로자들은 조국과 인민앞에 쌓아올리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불멸의 선군령도업적을 다시금 심장깊이 절감하였다.

지금 이곳 당원들과 농업근로자들은 당창건 65년이 되는 뜻깊은 올해에 높은 압록생산성파로 경애하는 장군님의 선군혁명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 나갈 마음안고 당면한 농사차비에서 혁신을 일으켜나가고있다.

로동동지인 리철관

# 공동시설의 사상과 정신을 깊이 체득하자

모든 일터마다에서 새로운 혁명적대고조를 일으키자면 당정책관철의 기수들이며 혁명의 지휘성원들이 우리 일군들부터 공동시설의 사상과 정신으로 튼튼히 무장하는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것을 명심하고있는 선전군당위원회 일군들이 당창건 65돐을 맞는 뜻깊은 올해에 더 많은 일을 할 드높은 열의로 심장을 끓이며 공동시설학습열풍을 세계에 일구고 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일군들은 학습을 첫머리는 혁명임무로, 사활적으로 여기고 꾸준히 학습하여 혁명의 지휘성원으로서의 자질과 품모를 완성해나가야 합니다.》

공동시설을 받아안은 날부터 선전군당위원회 일군들도 그 체계를 기본내용과 체계, 부분별과 임무를 무엇인가를 깊이 파악하고 학습담화를 실속있게 하고있고 있다. 이와 함께 부서별로 올해공동시설의

새해전투가 시작되었다. 올해전투는 첫시작부터 백열전이다. 인민경제의 주요전투장들마다에서 첫 전투승리의 패보가 울려 퍼진데 이어 각지에서 련일 새 소식이다. 평양일용품공장 첫 전투 계획 넘쳐 수행, 사리원시미곡협동농장에서 하루에 수백t의 거름 생산, 원산군민발전소건설장에서 하루 굴뚝기설치 1.5배... 1분이 귀중하고 1초가 새물다.

당창건 65돐을 맞이했다. 강성대국대문을 열어야 할 시각은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다.

그러니 첫 전투부터 백열전을 벌리는것은 응당하지 않는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서 있는 곳은 고요하다. 숨소리도 들리지 않는다. 다만 그것이 폭풍전야의 고요라는것이 느껴질뿐이다.

우리와 만난 경공업성 당일군은 말한다.

《새해공동시설학습입니다. 모두의 학습열의가 이면저면이다.》

그러면서 일군은 자기들이 우리 세대!

이렇게 불려놓고보니 동시대인들에 대한 애뜻한 정이 가슴에 차오른다.

장차로 흘러왔고 또 그렇게 흘러갈 인류사의 한 시대를 함께 하는것은 얼마나 좋은가. 사뭇마다 인생의 회로에 끼었다고 하지만 그것을 온 세대가 함께 하는 기쁨과 광만, 긍지와 영예는 비기치 못할것이다.

얼마전 구성시 양하협동농장을 찾았을 때였다.

새해공동시설과관련해서 펼쳐진 선전군당위원회를 취재하기 위하여 리당위원회에 들렀던 나는 리당일군을 한 사람과 어성을 높이는것을 보게 되었다.

《글쎄 특별히 할 이야기가 없습니다.》

《왜 없다는거요? 로병인 아버지의 이야기, 또 아버지의 당부대로 동무네 형제뿐 아니라 4촌형제들까지 다 군사복무를 마치고 농장에 뿌려내린 이야기... 좀 자랑을 하란 말이요.》

알고보니 새해 첫 전투에서 모범을 보인 6형제당원들을 취재하고 기자들이 왔었는데 모두 락심하고 돌아갔다는것이였다.

그래서 리당일군이 목소리를 높이고있었다.

말이인 김길하동무와 마주앉았던 나의 경우도 다를바 없었다. 무척 안되던지 김길하동무가 한마디하였다.

《아버지세대처럼 살고싶었을 뿐입니다.》

아버지세대처럼!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무엇인가 육중한것이 가슴을 쿵 울려 주었다.

자랑을 모르는 그가 무겁게 한 이야기처럼 아니었다.

멀리 흘러간 학창시절의 잊지 못할 추억이 불현듯 떠올라 서었다.

## 실천과 결부된 학습열풍

### 선전군당위원회 일군들

사상과 기본내용을 직관화하여 제시해놓고 학습을 심화시키는 한편 올해투쟁목표를 높이 세우고 수행방도를 찾도록 하고있다. 그 과정을 통하여 선전군당위원회의 모든 일군들이 올해공동시설에 담긴 사상과 정신을 더욱 깊이 체득하고있으며 새로운 혁명적대고조를 일으키는데서 투쟁의 기수, 혁명의 지휘성원으로서의 사명과 본분을 다해나갈 준비를 철저히 갖추어나가고있다.

공동시설 학습에서 책임일군들부터가 앞장서는것이 중요하다.

공동책임비서 류춘동동무는 반을 밝혀가며 공동시설의 내용을 먼저 켜든 다음 선전군당위원회의 일군들이 학습을 잘하도록 이끌어주고있다. 그는 군안의 일군들과 당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지난해에 이룩한 성과와 경험 그리고 교훈은 무엇이며 올해 전망에 나서는 과업은 어떤것인가를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사업을 진행해오고있다. 그래서 선전군당위원회의 일군들이 자신들의 사업과 밀접히 결부하여 공동시설을 자기자주 더욱 깊이 새겨가도록 하고있다.

김봉주, 김영선동무를 비롯

지금 《백석탄》에 와있다고 웃으며 말하는것이였다.

백석탄!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쟁쟁했다.

어버이수령님의 비범성을 후세에 전하는 백석탄 밀령에서의 군정학습, 그것은 대병력으로 달려드는 적들과 치열한 전투를 벌려야 하는 정황에서도 대부대전회작전을 승리로 계속할수 있게 한 결정적 요인의 하나였다.

백석탄밀령에서의 군정 학습과 일군들의 새해공동시설 학습!

일지하는것이 있었다. 전투상황중의 학습이고 보다는 큰 승리를 위한 학습이라는것이였다.

웃음으로 넘칠뻔 했던 일군의 이야기는 얼마나 큰 의미를 새겨주는 것인가.

우리 일군들 모두가 《군정 학습》에 참가한 전투원들이라는데, 이 학습전투의 승리가 올해전투의 승리에 결정적인 작용을 하게 될것이라는것이였다.

《군정 학습》은 계속되고있었다. 우리는 조용히 떠났다.

본사기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애국적인 조상이 있으면 애국적인 후손이 있기 마련이며 혁명적인 선배가 있으면 혁명적인 후배가 있는 법이다.》

추억의 어느 한 갈피에서 울려오는 메아리, 그것은 학창시절 모교의 스승의 목소리였다.

남이 저를도록 왜 집으로 가지 않느냐고 묻는 스승에게 이제 그와 집에 아무도 없고, 아버지, 어머니는 늘 늦게 집에 온다고 철없이 늘어놓는 《불평》.

여기까지 생각이 이르자 심장이 높뛰기 시작하였다. 마치 제법 해보지 못한 흘러간 시대의 한복판에 내가 서있는듯한 심정이었다. 아니 선군혁명위업이 보다 높은 단계로 발전하고있는 오늘날 하루하루가 그때처럼 가슴벅차고 격동적인 시대라는 생각이 가슴은 용암처럼 끓어올랐다. 이제 우리는 차대하 하는 자각이 온몸의 피를 끓게 하였다.

나의 눈앞에는 취재길에서 만났던 우리 세대의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이 떠올랐다. 조국보위초소에서, 강성대국건설전투장마다에서, 침탄들과의 열풍이 불어치는 곳곳마다에서 열정을 바쳐가던 참된 인간들, 우리 세대!

자랑스러운 그 모습이 가슴에 가득차면서 마음속에는 기쁨과 확신이 차넘쳤다.

우리 혁명의 력사적인 시대에 젊은 생을 빛내이게 된 행운의 기쁨과 우리의 헌신적인 삶과 함께 즐기게 이어질 선군혁명의 미래, 후대들의 앞날은 더 밝고 행복하리라는 믿음과 확신이 취재길을 이어가는 발걸음마다에 열정과 용기를 백배해주었다.

본사기자 림 현 숙

## 목표와 단계를 명백히 세우고

도시거름을 마련하여 묘자, 안상형동 농장을 비롯한 군안의 여러 협동농장에 보내줄수 있게 되었다.

선전군당위원회 일군들은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에서 공동시설 학습을 문답식방법으로 활발히 벌려 그 내용을 깊이 파악하도록 하고있으며 올해 자 단위앞에 나서는 과업을 판철하기 위한 방도를 옮겨 찾는 방향에서 학습을 보다 심화시켜나가기로 하였다.

공동시설을 깊이 학습하면서 선전군당위원회 일군들은 당창건 65돐을 맞는 뜻깊은 올해에 우리의 입심단결의 위력을 높이 떨치고 기충당조직들을 더욱 튼튼히 다지게 하자면 자신들부터 공동시설의 사상과 정신으로 튼튼히 무장해야 한다고 하면서 문답의 방법으로 내용을 깊이 파고들고있다. 그 과정에 공동시설의 내용을 환하게 켜는 조직부의 일군들은 담담한 자세로 공동시설에서 제시된 과업 관철에 군안의 당원들을 적극 발동하기 위한 당생활지도와 지도를 더욱 철저하게 하고있다.

공동시설 학습을 자기 단위의 실정과 밀접히 결부하여 실속있게 진행해나가고있는 이곳 선전군당위원회 일군들의 진지한 학습태도와 드높은 학습열의, 능숙한 작전과 지휘에 의하여 올해에 군안의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신심과 락관을 안고 힘찬 투쟁을 벌려 10월의 대추전장에 커다란 로력적 성과를 안고 멋뻐히 들어서게 될 것이다.

본사기자 리 종 석

## 원산철도차량련합기업소 당위원회에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학습은 목표와 단계를 명백히 세우고 하나씩 하나씩 어렵지 않게 해나가야 재미도 있고 성과도 거둘수 있다.》

올해공동시설을 크나큰 격조와 흥분속에 받아안은 원산철도차량련합기업소 당위원회에서는 공동시설에 대한 학습을 실속있게 진행하고있다.

련합기업소당위원회에서는 공동시설의 기본사상과 체계, 부분별과 임무를 깊이 인식시키는 단계, 학습한 내용을 토론편과 논쟁의 방법으로 자기의 실정과 밀접히 결부하여 실속있게 학습해나가고있는 이곳 선전군당위원회 일군들의 진지한 학습태도와 드높은 학습열의, 능숙한 작전과 지휘에 의하여 올해에 군안의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신심과 락관을 안고 힘찬 투쟁을 벌려 10월의 대추전장에 커다란 로력적 성과를 안고 멋뻐히 들어서게 될 것이다.

본사기자 최 일 호

나에게 하였다. 부서들에서 진행되는 학습도론회에 참가한 당위원회 책임비서와 비서들은 일군들에게 지난해에 강성대국의 대문을 두드리는데 놀라운 사변들에 대해 자료적으로 이야기해주면서 제국주의자들의 반공화국제압책동에 귀에 대고 들어온 준엄한 정세속에서도 모든 전선에서 세계적인 변혁이 일어나고 민족의 존엄이 높이 떨쳐진것은 언제나 맞닿아나가는 전진전승로 승리를 안아오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강한 자주적신념과 의지, 드센 배양과 정력적인 혁명활동의 고귀한 결실이라는것을 깊이 인식시켰다.

당위원회일군들은 공동시설의 대문장과 문구를 따져가며 거기에 담긴 내용을 깊이있게 파악하기 위한 학습도론회를 벌려나갔다.

당위원회일군들속에서 공동시설에 대한 학습열풍이 세차게 일자 생산참모부서일군들속에서도 학습열의가 대단히 높았다.

생산참모부서들에 들어간 당위원회일군들은 공동시설의 기본사상과 체계, 부분별과 임무를 무엇인가를 요점적으로 해설해 주기도 하고 계획한 학습과제에 대한 토론편과 논쟁의 방법으로 학습을 심화시켜

결과하여 해설해줄수 있도록 논쟁의 일군들을 준비시켰다. 초급당위원회는 당 및 근로단체일군들과 관리위원회일군들을 작업반들에 내려보내어 당원들과 농업근로자들속에서 공동시설 학습을 깊이있게 하도록 이끌어주게 하였다.

3중3대혁명붉은기 제1작업반에 내려간 초급당비서 김종운동무는 거름생산전투를 벌리는 작업반원들속에 들어가 일도 함께 하고 실천에는 공동시설의 내용을 해설해주면서 올해대추농사를 본때있게 잘 짓자면 혁명의 지휘성원인 자신들부터 정지사상적으로 튼튼히 무장해야 한다고 하면서 초급당위원회의 지도밑에 공동시설의 내용을 깊이 파고들고있다.

초급당위원회는 공동시설의 체계와 내용을 당원들과 근로단체일군들, 관리위원회일군들이 환히 깨들도록 하기 위한 학습을 진지하게 하도록 하고있다. 초급당위원회일군들은 농업부문에 나선 과업을 위대한 장군님께서 농장을 현치지도 하시면서 주신 과업과 밀접히

결부하여 해설해줄수 있도록 논쟁의 일군들을 준비시켰다. 초급당위원회는 당 및 근로단체일군들과 관리위원회일군들을 작업반들에 내려보내어 당원들과 농업근로자들속에서 공동시설 학습을 깊이있게 하도록 이끌어주게 하였다.

제1작업반과 제1작업반을 비롯한 모든 작업반의 초급일군들과 선동원들은 농장의 당 및 행정일군들과 보조를 맞추어 당원들과 농업근로자들속에 공동시설의 체계와 내용을 알기 쉽게 해설해주기 위한 사업을 활발히 벌리고있다.

공동시설의 기본사상과 내용을 자자구구 새겨보며 농장의 당원들과 농업근로자들은 승리의 신심드높이 흠모산비료와 상과 내용을 해설해주면서 그들을 힘있게 고무해주었다. 한편 제5작업반에 내려간 기사장진호동무와 다른 작업반들의 거름생산전투장에 뛰어난 초급당일군들도 철학마다 공동시설 학습을 문답의 방법을 배합하여 잘 이끌어나갔다.

특히 소석회를 많이 생산하여 논밭에 내기 위한 투쟁을

위한 전투를 기동성있게 조직하면서 콩크리트동불을 자체의 실정에 맞게 개조하여 리용하기 위한 사업도 잘 짜고 들었다.

그러하여 탄광의 개막장들에서는 첫 전투에서부터 새로운 혁신이 창조되고있다. 혁신의 앞장에는 용맹 김인호체관중대원들이 서있다. 이들은 앞선 체관방법을 적극 받아들이며서 체관장부하들을 최대한으로 높여 련일 높은 실적을 기록하고 있다.

생산준비를 본격적으로 다그

본사기자 강 명 천

본사기자 김 종 훈

본사기자 김 종 훈

본사기자 김 종 훈

본사기자 김 종 훈

본사기자 김 종 훈

본사기자 김 종 훈

본사기자 김 종 훈

본사기자 김 종 훈

본사기자 김 종 훈

본사기자 김 종 훈

본사기자 김 종 훈

본사기자 김 종 훈

본사기자 김 종 훈

본사기자 김 종 훈

본사기자 김 종 훈

본사기자 김 종 훈



공동시설 학습을 실속있게 진행하고 있다. -농업성에서- 본사기자 리명남 찍음

##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강제편직공장 초급당위원회에서

공동시설의 정신을 중점일군들의 실정속에 깊이 심어주기 위한 학습을 짜고들어 진행하고있다.

공창초급당위원회에서는 새해공동시설을 받아안고 일군들부터 공동시설에 담긴 심오한 사상을 환히 깨들도록 하는 한편 당세포별로 공동

사실 학습을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활발히 진행하도록 하고있다.

하루사업의 첫 일과로 시작되는 공동시설 학습을 통하여 공창의 모든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올해의 전진목표를 자기들의 사명과 본분을 다해갈

새해공동시설의 전투적소식을 높이 받들고 안주지구관련합기업소 통일탄광의 일군들과 탄부들이 산악같이 펼쳐진 생산성과를 확대해나가고 있다. 새해에 올리고 탄광에 대한 당의 전투적호소에 접한 탄광의 일군들과 탄부들의 투쟁기세는 높고 생산전망은 락관적이다. 당조직의 지도밑에 탄광에서는 화산정지사업을 앞세우고 경제조직사업을 빈틈없이 짜고들어 일군들과 탄부들의 드높은 생산열의가 높은 생산실적으로 이어지게 하고있다.

탄광참모부에서는 새로 조업한 통일탄광 서부 1호체관장에 체공력량을 집중하면서 2호,

본사기자 김 종 훈

본사기자 김 종 훈

본사기자 김 종 훈

본사기자 김 종 훈

본사기자 김 종 훈

본사기자 김 종 훈

본사기자 김 종 훈

본사기자 김 종 훈

본사기자 김 종 훈

본사기자 김 종 훈

본사기자 김 종 훈

본사기자 김 종 훈

## 들끓는 전투장에 뛰어들어

은천군 량담농장 초급당위원회에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당정책은 대중이 그 정당성을 깊이 인식하고 자기있게 받아들이는 때 그리고 구체적인 조직사업이 안착될 때 비로소 성과적으로 관철될수 있습니다.》

어버이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불멸의 령도업적이 아로새겨져있는 은천군 량담농장이 새해농사차비로 끓어올라가고있다. 농장의 일군들은 올해대추농사를 본때있게 잘 짓자면 혁명의 지휘성원인 자신들부터 정지사상적으로 튼튼히 무장해야 한다고 하면서 초급당위원회의 지도밑에 공동시설의 내용을 깊이 파고들고있다.

초급당위원회는 공동시설의 체계와 내용을 당원들과 근로단체일군들, 관리위원회일군들이 환히 깨들도록 하기 위한 학습을 진지하게 하도록 하고있다. 초급당위원회일군들은 농업부문에 나선 과업을 위대한 장군님께서 농장을 현치지도 하시면서 주신 과업과 밀접히

결부하여 해설해줄수 있도록 논쟁의 일군들을 준비시켰다. 초급당위원회는 당 및 근로단체일군들과 관리위원회일군들을 작업반들에 내려보내어 당원들과 농업근로자들속에서 공동시설 학습을 깊이있게 하도록 이끌어주게 하였다.

제1작업반과 제1작업반을 비롯한 모든 작업반의 초급일군들과 선동원들은 농장의 당 및 행정일군들과 보조를 맞추어 당원들과 농업근로자들속에 공동시설의 체계와 내용을 알기 쉽게 해설해주기 위한 사업을 활발히 벌리고있다.

공동시설의 기본사상과 내용을 자자구구 새겨보며 농장의 당원들과 농업근로자들은 승리의 신심드높이 흠모산비료와 상과 내용을 해설해주면서 그들을 힘있게 고무해주었다. 한편 제5작업반에 내려간 기사장진호동무와 다른 작업반들의 거름생산전투장에 뛰어난 초급당일군들도 철학마다 공동시설 학습을 문답의 방법을 배합하여 잘 이끌어나갔다.

특히 소석회를 많이 생산하여 논밭에 내기 위한 투쟁을

위한 전투를 기동성있게 조직하면서 콩크리트동불을 자체의 실정에 맞게 개조하여 리용하기 위한 사업도 잘 짜고 들었다.

그러하여 탄광의 개막장들에서는 첫 전투에서부터 새로운 혁신이 창조되고있다. 혁신의 앞장에는 용맹 김인호체관중대원들이 서있다. 이들은 앞선 체관방법을 적극 받아들이며서 체관장부하들을 최대한으로 높여 련일 높은 실적을 기록하고 있다.

생산준비를 본격적으로 다그

본사기자 김 종 훈

본사기자 김 종 훈

본사기자 김 종 훈

본사기자 김 종 훈

본사기자 김 종 훈

본사기자 김 종 훈

본사기자 김 종 훈

본사기자 김 종 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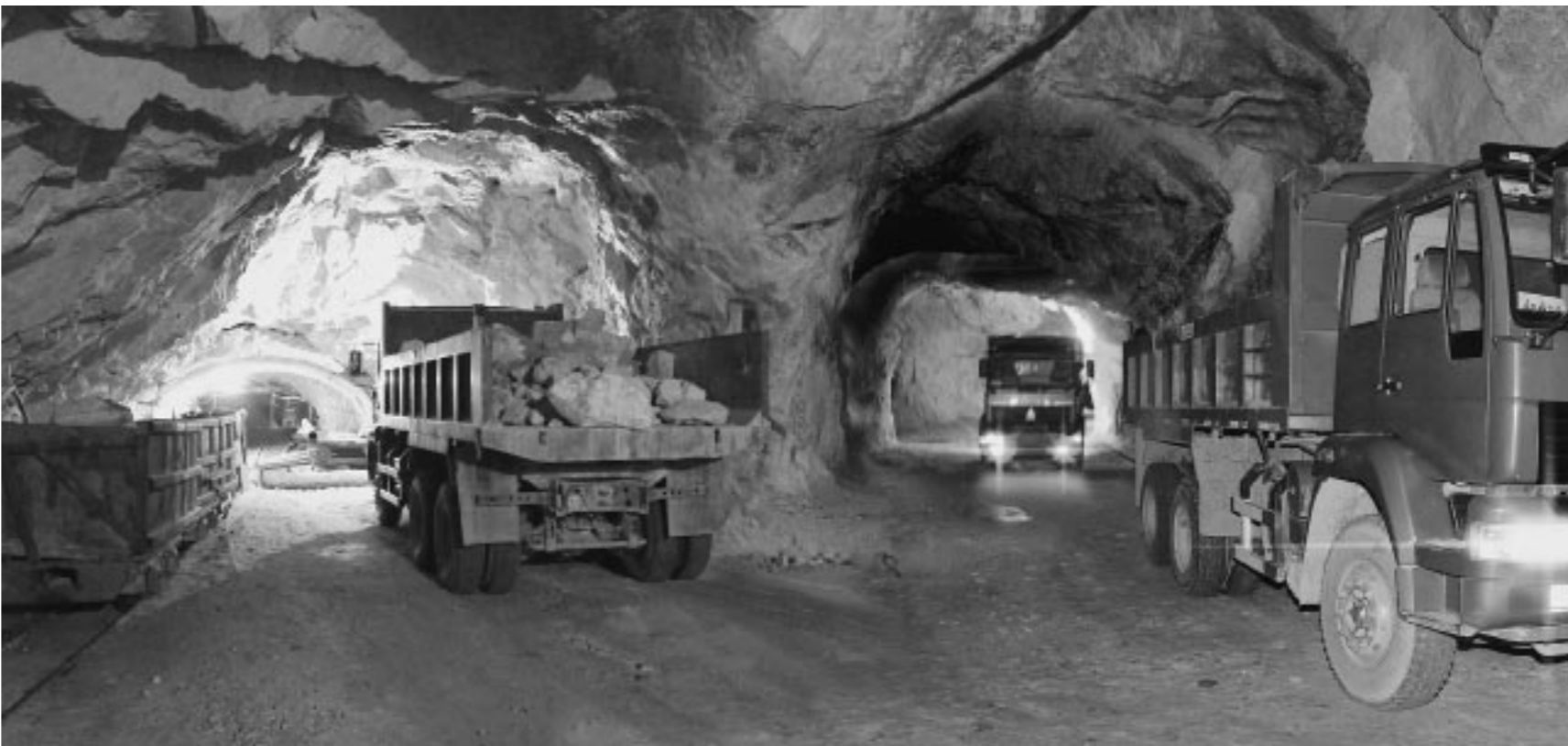
본사기자 김 종 훈

본사기자 김 종 훈

본사기자 김 종 훈

본사기자 김 종 훈

본사기자 김 종 훈



위대한 장군님의 현저말씀을 높이 받들고 막장의 대형화를 실현하여 광물생산에서 혁신을 일으키고있다 -통양광산 금산정에서- 본사기자 김 종 훈



# 북남관계개선은 시대의 절박한 요구

《북남공동선언의 기치밑에 온 민족이 단합하여 조국통일을 하루빨리 실현하자!》는 새해공동사설의 전투적 구호에 접한 북과 남, 해외의 온 민족은 한없이 격동되어있다. 새해와 더불어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기치밑에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북남관계를 개선하고 조국통일의 전향적 국면을 열어나가기 위한 해의 온 민족의 의지와 신념은 더욱 굳어져지고 있다.

새해공동사설은 북남관계개선의 길을 열어나가는것을 6.15공동선언 발표 10돐, 고려민주연방공화국창립 40돐을 맞는 뜻깊은 올해 조국통일부문에 나서서 가장 중요한 과업의 하나로 제시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북과 남사이의 관계를 개선하는 것은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절박한 요구이다.》**

올해공동사설에 천명된바와 같이 력사적인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이 기초하여 북남관계를 개선하고 조국통일의 앞길을 열어나가는 우리의 립장은 확고부동하다.

북남관계개선은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에 천명된 《우리 민족끼리》의 립에 따라 자주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필수적 전제이다. 북남관계개선을 떠나 민족적화해와 단합, 협력을 생각할수 없고 나라의 평화와 민족의 안전도 바랄수 없으며 조국통일과 관련한 그 어떤 문제도 민족의 의사와 리익에 맞서 공개적으로 해결해나갈수 없다. 북과 남의 관계를 개선하고 민족적 화해와 단합을 실현하기 위한 전제이기에 근본요구이다. 북남관계개선은 한민족을 나눈 동족사이의 관계, 우리 민족끼리의 관계로서 외에 의 해 인위적으로 갈라진 국과 민족의 재통합을 실현하기 위한 통일지향적인 관계로 되어야 한다. 오늘의 6.15 통일시대는 북남관계문제나 조국통일 노력을 다 기울여왔다. 특히 우리가

특수조의방문단을 서울에 파견하여 북남관계개선의지를 보여주고 남조선 현 대그룹 회장의 평양방문대 절실하게 요구한 것은 문제들을 대범하게 다 풀어 준것 등은 어떻게 하나 악화된 북남관계를 완화시켜 화해와 협력의 새 장을 열어나가기 위한 승고한 동포애와 통일애의 일념으로부터 출발한것이다. 남조선당국이 우리의 애국애족적인 조치들에 긍정적으로 호응해나왔다면 이미 지난해에 북남관계가 북신과 대결상태에서 벗어나 신뢰와 화해, 협력의 단계로 전환되었을것이다. 우리의 아량과 선의에도 불구하고 6.15이전의 침체에 대한 대결상태로 되돌아간 북남관계의 현실은 남조선당국의 반공화국대결책동이 끝장나지 않는 한 북남관계개선의 길은 가로막히고 조선반도의 평화와 민족의 안전은 엄중히 침해당하기마련이며 화해와 단합, 조국통일의 앞길이 더욱더 높은 장벽만이 쌓여갈 뿐이라는것을 웅변으로 실증해주고 있다.

북남관계의 긍정적인 측면은 적극 장려하고 중화하며 부정적인 측면은 인식해나감으로써 올해에 어떻게 하나 북남관계개선과 자주통일의 길을 열어놓아야 한다. 이것은 해외의 온 민족의 한결같은 의지로, 열망으로 되고 있다.

북남관계개선의 길을 열어나가는 데서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북남관계를 철저히 우리 민족끼리의 관계로 전환 시키는것이다.

북과 남의 관계를 우리 민족끼리의 관계로 전환시키는것은 북신과 대결을 끝장내고 화해와 단합을 실현하기 위한 전제이기에 근본요구이다. 북남관계개선은 한민족을 나눈 동족사이의 관계, 우리 민족끼리의 관계로서 외에 의 해 인위적으로 갈라진 국과 민족의 재통합을 실현하기 위한 통일지향적인 관계로 되어야 한다. 오늘의 6.15 통일시대는 북남관계문제나 조국통일 노력을 다 기울여왔다. 특히 우리가

서로 힘을 합쳐 외세의 지배와 간섭을 배격하고 민족자제로 해결하려는 투철한 민족자주정신을 지닐것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 민족끼리》는 특정한 그 누구의 구호가 아니라 북과 남이 합치하고 온 세상에 선포한 북남관계개선과 조국통일을 위한 민족공동의 리념이다. 《우리 민족끼리》리념의 정당성과 생활력은 지난 시기 북남관계와 조국통일운동의 실천과정에서 여실히 증명되었다. 실제이상이나 격백상태에 있던 분렬의 장벽에 파괴구가 뚫리고 북과 남사이에서 끊여졌던 철도와 도로가 이어졌으며 북남사이의 대화와 협력사업이 활발해졌것 등은 6.15이전시기에는 상상도 할수 없었던 사변적인것들이었다. 이것은 해외의 온 민족이 《우리 민족끼리》리념의 기치아래 분발하긴만 한다면 안팎의 분렬주의세력들의 그 어떤 반동일체주의 짓부시고 북남관계문제와 조국통일문제를 원만히 해결해나갈수 있다는것을 확증해준다.

《우리 민족끼리》리념에 대한 부정은 곧 북남관계개선과 조국통일을 위한 부정이다. 《우리 민족끼리》리념을 부정하면서 《대화》, 《남북관계개선》이니 하는것은 가짜이며 민족의 통일념을 우롱하는 행위로밖에 될것이다.

지난해 남조선당국이 열도당도않은 부당한 조건부들을 내주고 반공화국적 태도의 도수를 더한중 놀이면서 민간교래와 협력사업마저 전면차단시킴으로써 우리의 아량과 선의의 조치들에 의해 마련된 북남관계개선의 분기기를 해진것을 그것을 잘 말해준다.

북남관계개선에 외세를 거들거나 핵문제를 북남관계개선의 전제조건으로 삼는것과 같은 행위는 본질상 북남관계를 돌이킬수 없는 파괴의 위기로 몰아넣기 위한것으로서 절대로 허용될수 없다. 남조선당국자들이 진정 온 동족과의 관계개선과 조국통일을

바라다면 시대착오적인 반공화국대결정책을 권부화해정책으로 바꾸고 외세가 아니라 민족에 의지하며 동족과 손을 잡고 민족문제를 해결해나가는데로 방향전환을 하여야 한다.

북남관계개선의 길을 열어나가기 위하여서는 자주통일대강인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정신을 존중하고 성실히 리행해나가는것이 중요하다.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은 민족자주통일대강이다. 따라서 그 리행을 떠나 북남관계개선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다. 북남공동선언들을 부정하면서 《대화》와 《협력》을 운운하는것은 언어도단이다. 6.15이후의 사태발전은 북남공동선언들을 지지, 옹호하고 성실히 리행하는데 북남관계개선의 길이 있다는것을 웅변으로 말해주고 있다.

새해공동사설에서 강조된바와 같이 남조선당국이 6.15공동선언을 부정하고 외세와 결탁하여 대결운동에 계속 매달린다면 북남관계는 언제 가도 개선될수 없다. 남조선당국은 대결과 긴장을 격화시키는 일을 하지 말아야 하며 북남공동선언을 존중하고 북남대화과 관계개선의 길로 나아가야 할것이다. 만약 그들이 민족을 등지고 한사과 외세와 야합하여 북남관계개선을 가로막는 길로 계속 나간다면 북남관계파괴자, 분렬주의자로서 민족의 버림을 받게 될것이며 력사의 심판을 면치 못하게 될것이다.

북남관계개선의 길을 열어나가는가, 열어나가지 못하는가에 자주통일위업의 운명이 달려있다.

해내외의 전체 조선민족은 올해공동사설의 전투적호소를 심장으로 받들고 단합된 힘으로 반동일체력의 온갖 도전을 물리치며 거족적인 통일대행진을 다그쳐나감으로써 2010년 조국통일의 새 국면을 여는 해로 민족적 화해와 단합을 실현하기 위한 통일지향적인 행위로밖에 될것이다.

# 민족이 위대한 투쟁을 위하여

조국통일의 리정표인 6.15북남공동선언과 그 실천강령인 10.4선언을 마련하여주시고 우리 민족이 자주통일, 평화번영을 위한 길로 힘차게 전진해나갈수 있도록 이끌어주시는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에 대한 남녘겨레의 호모의 정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통일운동단체의 한 성원은 《2000년 6월의 평양양평이 남북간의 북신과 대결의 시대를 끝장내고 화해와 통일의 시대를 연 력사적인 상봉이었다는데도 그 의미가 크졌지만 그보다도 이를 통해 진정한 통일의 구실을 보였고 통일조국의 미래를 확신하게 된데 더 큰 의미가 있다.》고 하면서 《김정일장군님은 진정 우리 민족의 위대한 태양》이라고 칭송하였다.

인론이 유상후는 공 동선언발표이후 《민심의 광장》에서 목격 한 사실에 대해 자기의 글에 이렇게 썼다.

《민심의 광장》에 모여든 사람들은 웅모 대양을 따르지는 않음직일수 없는 진리이며 법칙이다. 이 조사자로는 민족의 태양이 김정일장군님에 대한 믿고 따르는 전체 북민족의 절대적인 신념과 확고한 의지를 그대로 반영한것이다.》고 자기의 심정을 터놓았다.

《민심의 광장》에 모여든 사람들은 웅모 대양을 따르지는 않음직일수 없는 진리이며 법칙이다. 이 조사자로는 민족의 태양이 김정일장군님에 대한 믿고 따르는 전체 북민족의 절대적인 신념과 확고한 의지를 그대로 반영한것이다.》고 자기의 심정을 터놓았다.

《민심의 광장》에 모여든 사람들은 웅모 대양을 따르지는 않음직일수 없는 진리이며 법칙이다. 이 조사자로는 민족의 태양이 김정일장군님에 대한 믿고 따르는 전체 북민족의 절대적인 신념과 확고한 의지를 그대로 반영한것이다.》고 자기의 심정을 터놓았다.

《민심의 광장》에 모여든 사람들은 웅모 대양을 따르지는 않음직일수 없는 진리이며 법칙이다. 이 조사자로는 민족의 태양이 김정일장군님에 대한 믿고 따르는 전체 북민족의 절대적인 신념과 확고한 의지를 그대로 반영한것이다.》고 자기의 심정을 터놓았다.

《민심의 광장》에 모여든 사람들은 웅모 대양을 따르지는 않음직일수 없는 진리이며 법칙이다. 이 조사자로는 민족의 태양이 김정일장군님에 대한 믿고 따르는 전체 북민족의 절대적인 신념과 확고한 의지를 그대로 반영한것이다.》고 자기의 심정을 터놓았다.

《민심의 광장》에 모여든 사람들은 웅모 대양을 따르지는 않음직일수 없는 진리이며 법칙이다. 이 조사자로는 민족의 태양이 김정일장군님에 대한 믿고 따르는 전체 북민족의 절대적인 신념과 확고한 의지를 그대로 반영한것이다.》고 자기의 심정을 터놓았다.

《민심의 광장》에 모여든 사람들은 웅모 대양을 따르지는 않음직일수 없는 진리이며 법칙이다. 이 조사자로는 민족의 태양이 김정일장군님에 대한 믿고 따르는 전체 북민족의 절대적인 신념과 확고한 의지를 그대로 반영한것이다.》고 자기의 심정을 터놓았다.

《민심의 광장》에 모여든 사람들은 웅모 대양을 따르지는 않음직일수 없는 진리이며 법칙이다. 이 조사자로는 민족의 태양이 김정일장군님에 대한 믿고 따르는 전체 북민족의 절대적인 신념과 확고한 의지를 그대로 반영한것이다.》고 자기의 심정을 터놓았다.

《민심의 광장》에 모여든 사람들은 웅모 대양을 따르지는 않음직일수 없는 진리이며 법칙이다. 이 조사자로는 민족의 태양이 김정일장군님에 대한 믿고 따르는 전체 북민족의 절대적인 신념과 확고한 의지를 그대로 반영한것이다.》고 자기의 심정을 터놓았다.

《민심의 광장》에 모여든 사람들은 웅모 대양을 따르지는 않음직일수 없는 진리이며 법칙이다. 이 조사자로는 민족의 태양이 김정일장군님에 대한 믿고 따르는 전체 북민족의 절대적인 신념과 확고한 의지를 그대로 반영한것이다.》고 자기의 심정을 터놓았다.

《민심의 광장》에 모여든 사람들은 웅모 대양을 따르지는 않음직일수 없는 진리이며 법칙이다. 이 조사자로는 민족의 태양이 김정일장군님에 대한 믿고 따르는 전체 북민족의 절대적인 신념과 확고한 의지를 그대로 반영한것이다.》고 자기의 심정을 터놓았다.

《민심의 광장》에 모여든 사람들은 웅모 대양을 따르지는 않음직일수 없는 진리이며 법칙이다. 이 조사자로는 민족의 태양이 김정일장군님에 대한 믿고 따르는 전체 북민족의 절대적인 신념과 확고한 의지를 그대로 반영한것이다.》고 자기의 심정을 터놓았다.

《민심의 광장》에 모여든 사람들은 웅모 대양을 따르지는 않음직일수 없는 진리이며 법칙이다. 이 조사자로는 민족의 태양이 김정일장군님에 대한 믿고 따르는 전체 북민족의 절대적인 신념과 확고한 의지를 그대로 반영한것이다.》고 자기의 심정을 터놓았다.

《민심의 광장》에 모여든 사람들은 웅모 대양을 따르지는 않음직일수 없는 진리이며 법칙이다. 이 조사자로는 민족의 태양이 김정일장군님에 대한 믿고 따르는 전체 북민족의 절대적인 신념과 확고한 의지를 그대로 반영한것이다.》고 자기의 심정을 터놓았다.

《민심의 광장》에 모여든 사람들은 웅모 대양을 따르지는 않음직일수 없는 진리이며 법칙이다. 이 조사자로는 민족의 태양이 김정일장군님에 대한 믿고 따르는 전체 북민족의 절대적인 신념과 확고한 의지를 그대로 반영한것이다.》고 자기의 심정을 터놓았다.

《민심의 광장》에 모여든 사람들은 웅모 대양을 따르지는 않음직일수 없는 진리이며 법칙이다. 이 조사자로는 민족의 태양이 김정일장군님에 대한 믿고 따르는 전체 북민족의 절대적인 신념과 확고한 의지를 그대로 반영한것이다.》고 자기의 심정을 터놓았다.

《민심의 광장》에 모여든 사람들은 웅모 대양을 따르지는 않음직일수 없는 진리이며 법칙이다. 이 조사자로는 민족의 태양이 김정일장군님에 대한 믿고 따르는 전체 북민족의 절대적인 신념과 확고한 의지를 그대로 반영한것이다.》고 자기의 심정을 터놓았다.

《민심의 광장》에 모여든 사람들은 웅모 대양을 따르지는 않음직일수 없는 진리이며 법칙이다. 이 조사자로는 민족의 태양이 김정일장군님에 대한 믿고 따르는 전체 북민족의 절대적인 신념과 확고한 의지를 그대로 반영한것이다.》고 자기의 심정을 터놓았다.

《민심의 광장》에 모여든 사람들은 웅모 대양을 따르지는 않음직일수 없는 진리이며 법칙이다. 이 조사자로는 민족의 태양이 김정일장군님에 대한 믿고 따르는 전체 북민족의 절대적인 신념과 확고한 의지를 그대로 반영한것이다.》고 자기의 심정을 터놓았다.

《민심의 광장》에 모여든 사람들은 웅모 대양을 따르지는 않음직일수 없는 진리이며 법칙이다. 이 조사자로는 민족의 태양이 김정일장군님에 대한 믿고 따르는 전체 북민족의 절대적인 신념과 확고한 의지를 그대로 반영한것이다.》고 자기의 심정을 터놓았다.

《민심의 광장》에 모여든 사람들은 웅모 대양을 따르지는 않음직일수 없는 진리이며 법칙이다. 이 조사자로는 민족의 태양이 김정일장군님에 대한 믿고 따르는 전체 북민족의 절대적인 신념과 확고한 의지를 그대로 반영한것이다.》고 자기의 심정을 터놓았다.

《민심의 광장》에 모여든 사람들은 웅모 대양을 따르지는 않음직일수 없는 진리이며 법칙이다. 이 조사자로는 민족의 태양이 김정일장군님에 대한 믿고 따르는 전체 북민족의 절대적인 신념과 확고한 의지를 그대로 반영한것이다.》고 자기의 심정을 터놓았다.

《민심의 광장》에 모여든 사람들은 웅모 대양을 따르지는 않음직일수 없는 진리이며 법칙이다. 이 조사자로는 민족의 태양이 김정일장군님에 대한 믿고 따르는 전체 북민족의 절대적인 신념과 확고한 의지를 그대로 반영한것이다.》고 자기의 심정을 터놓았다.

《민심의 광장》에 모여든 사람들은 웅모 대양을 따르지는 않음직일수 없는 진리이며 법칙이다. 이 조사자로는 민족의 태양이 김정일장군님에 대한 믿고 따르는 전체 북민족의 절대적인 신념과 확고한 의지를 그대로 반영한것이다.》고 자기의 심정을 터놓았다.

《민심의 광장》에 모여든 사람들은 웅모 대양을 따르지는 않음직일수 없는 진리이며 법칙이다. 이 조사자로는 민족의 태양이 김정일장군님에 대한 믿고 따르는 전체 북민족의 절대적인 신념과 확고한 의지를 그대로 반영한것이다.》고 자기의 심정을 터놓았다.

《민심의 광장》에 모여든 사람들은 웅모 대양을 따르지는 않음직일수 없는 진리이며 법칙이다. 이 조사자로는 민족의 태양이 김정일장군님에 대한 믿고 따르는 전체 북민족의 절대적인 신념과 확고한 의지를 그대로 반영한것이다.》고 자기의 심정을 터놓았다.

《민심의 광장》에 모여든 사람들은 웅모 대양을 따르지는 않음직일수 없는 진리이며 법칙이다. 이 조사자로는 민족의 태양이 김정일장군님에 대한 믿고 따르는 전체 북민족의 절대적인 신념과 확고한 의지를 그대로 반영한것이다.》고 자기의 심정을 터놓았다.

《민심의 광장》에 모여든 사람들은 웅모 대양을 따르지는 않음직일수 없는 진리이며 법칙이다. 이 조사자로는 민족의 태양이 김정일장군님에 대한 믿고 따르는 전체 북민족의 절대적인 신념과 확고한 의지를 그대로 반영한것이다.》고 자기의 심정을 터놓았다.

《민심의 광장》에 모여든 사람들은 웅모 대양을 따르지는 않음직일수 없는 진리이며 법칙이다. 이 조사자로는 민족의 태양이 김정일장군님에 대한 믿고 따르는 전체 북민족의 절대적인 신념과 확고한 의지를 그대로 반영한것이다.》고 자기의 심정을 터놓았다.

《민심의 광장》에 모여든 사람들은 웅모 대양을 따르지는 않음직일수 없는 진리이며 법칙이다. 이 조사자로는 민족의 태양이 김정일장군님에 대한 믿고 따르는 전체 북민족의 절대적인 신념과 확고한 의지를 그대로 반영한것이다.》고 자기의 심정을 터놓았다.

《민심의 광장》에 모여든 사람들은 웅모 대양을 따르지는 않음직일수 없는 진리이며 법칙이다. 이 조사자로는 민족의 태양이 김정일장군님에 대한 믿고 따르는 전체 북민족의 절대적인 신념과 확고한 의지를 그대로 반영한것이다.》고 자기의 심정을 터놓았다.

《민심의 광장》에 모여든 사람들은 웅모 대양을 따르지는 않음직일수 없는 진리이며 법칙이다. 이 조사자로는 민족의 태양이 김정일장군님에 대한 믿고 따르는 전체 북민족의 절대적인 신념과 확고한 의지를 그대로 반영한것이다.》고 자기의 심정을 터놓았다.

《민심의 광장》에 모여든 사람들은 웅모 대양을 따르지는 않음직일수 없는 진리이며 법칙이다. 이 조사자로는 민족의 태양이 김정일장군님에 대한 믿고 따르는 전체 북민족의 절대적인 신념과 확고한 의지를 그대로 반영한것이다.》고 자기의 심정을 터놓았다.

《민심의 광장》에 모여든 사람들은 웅모 대양을 따르지는 않음직일수 없는 진리이며 법칙이다. 이 조사자로는 민족의 태양이 김정일장군님에 대한 믿고 따르는 전체 북민족의 절대적인 신념과 확고한 의지를 그대로 반영한것이다.》고 자기의 심정을 터놓았다.

《민심의 광장》에 모여든 사람들은 웅모 대양을 따르지는 않음직일수 없는 진리이며 법칙이다. 이 조사자로는 민족의 태양이 김정일장군님에 대한 믿고 따르는 전체 북민족의 절대적인 신념과 확고한 의지를 그대로 반영한것이다.》고 자기의 심정을 터놓았다.

《민심의 광장》에 모여든 사람들은 웅모 대양을 따르지는 않음직일수 없는 진리이며 법칙이다. 이 조사자로는 민족의 태양이 김정일장군님에 대한 믿고 따르는 전체 북민족의 절대적인 신념과 확고한 의지를 그대로 반영한것이다.》고 자기의 심정을 터놓았다.

《민심의 광장》에 모여든 사람들은 웅모 대양을 따르지는 않음직일수 없는 진리이며 법칙이다. 이 조사자로는 민족의 태양이 김정일장군님에 대한 믿고 따르는 전체 북민족의 절대적인 신념과 확고한 의지를 그대로 반영한것이다.》고 자기의 심정을 터놓았다.

《민심의 광장》에 모여든 사람들은 웅모 대양을 따르지는 않음직일수 없는 진리이며 법칙이다. 이 조사자로는 민족의 태양이 김정일장군님에 대한 믿고 따르는 전체 북민족의 절대적인 신념과 확고한 의지를 그대로 반영한것이다.》고 자기의 심정을 터놓았다.

《민심의 광장》에 모여든 사람들은 웅모 대양을 따르지는 않음직일수 없는 진리이며 법칙이다. 이 조사자로는 민족의 태양이 김정일장군님에 대한 믿고 따르는 전체 북민족의 절대적인 신념과 확고한 의지를 그대로 반영한것이다.》고 자기의 심정을 터놓았다.

《민심의 광장》에 모여든 사람들은 웅모 대양을 따르지는 않음직일수 없는 진리이며 법칙이다. 이 조사자로는 민족의 태양이 김정일장군님에 대한 믿고 따르는 전체 북민족의 절대적인 신념과 확고한 의지를 그대로 반영한것이다.》고 자기의 심정을 터놓았다.

《민심의 광장》에 모여든 사람들은 웅모 대양을 따르지는 않음직일수 없는 진리이며 법칙이다. 이 조사자로는 민족의 태양이 김정일장군님에 대한 믿고 따르는 전체 북민족의 절대적인 신념과 확고한 의지를 그대로 반영한것이다.》고 자기의 심정을 터놓았다.

《민심의 광장》에 모여든 사람들은 웅모 대양을 따르지는 않음직일수 없는 진리이며 법칙이다. 이 조사자로는 민족의 태양이 김정일장군님에 대한 믿고 따르는 전체 북민족의 절대적인 신념과 확고한 의지를 그대로 반영한것이다.》고 자기의 심정을 터놓았다.

《민심의 광장》에 모여든 사람들은 웅모 대양을 따르지는 않음직일수 없는 진리이며 법칙이다. 이 조사자로는 민족의 태양이 김정일장군님에 대한 믿고 따르는 전체 북민족의 절대적인 신념과 확고한 의지를 그대로 반영한것이다.》고 자기의 심정을 터놓았다.

《민심의 광장》에 모여든 사람들은 웅모 대양을 따르지는 않음직일수 없는 진리이며 법칙이다. 이 조사자로는 민족의 태양이 김정일장군님에 대한 믿고 따르는 전체 북민족의 절대적인 신념과 확고한 의지를 그대로 반영한것이다.》고 자기의 심정을 터놓았다.

《민심의 광장》에 모여든 사람들은 웅모 대양을 따르지는 않음직일수 없는 진리이며 법칙이다. 이 조사자로는 민족의 태양이 김정일장군님에 대한 믿고 따르는 전체 북민족의 절대적인 신념과 확고한 의지를 그대로 반영한것이다.》고 자기의 심정을 터놓았다.

《민심의 광장》에 모여든 사람들은 웅모 대양을 따르지는 않음직일수 없는 진리이며 법칙이다. 이 조사자로는 민족의 태양이 김정일장군님에 대한 믿고 따르는 전체 북민족의 절대적인 신념과 확고한 의지를 그대로 반영한것이다.》고 자기의 심정을 터놓았다.

《민심의 광장》에 모여든 사람들은 웅모 대양을 따르지는 않음직일수 없는 진리이며 법칙이다. 이 조사자로는 민족의 태양이 김정일장군님에 대한 믿고 따르는 전체 북민족의 절대적인 신념과 확고한 의지를 그대로 반영한것이다.》고 자기의 심정을 터놓았다.

《민심의 광장》에 모여든 사람들은 웅모 대양을 따르지는 않음직일수 없는 진리이며 법칙이다. 이 조사자로는 민족의 태양이 김정일장군님에 대한 믿고 따르는 전체 북민족의 절대적인 신념과 확고한 의지를 그대로 반영한것이다.》고 자기의 심정을 터놓았다.

《민심의 광장》에 모여든 사람들은 웅모 대양을 따르지는 않음직일수 없는 진리이며 법칙이다. 이 조사자로는 민족의 태양이 김정일장군님에 대한 믿고 따르는 전체 북민족의 절대적인 신념과 확고한 의지를 그대로 반영한것이다.》고 자기의 심정을 터놓았다.

《민심의 광장》에 모여든 사람들은 웅모 대양을 따르지는 않음직일수 없는 진리이며 법칙이다. 이 조사자로는 민족의 태양이 김정일장군님에 대한 믿고 따르는 전체 북민족의 절대적인 신념과 확고한 의지를 그대로 반영한것이다.》고 자기의 심정을 터놓았다.

# 새해공동사설을 지지하여

## 로씨야고통련이 성명

로씨야고려인통일연합회(로씨야고통련)가 《로동신문》, 《조선인민군》, 《청년전선》 공동사설을 지지하여 2일 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새해공동사설을 접한 로씨야고통련의 전체 성원들이 커다란 격정을 휩싸여있고 있다고 밝혔다.

6.15공동선언과 그 실천강령인 10.4선언이 채택되고 우리 민족이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의 길로 전진해온 지난 10년간은 북남공동선언들이 가장 정당한 통일대강이며 《우리 민족끼리》야말로 6.15 통일시대의 민족정신, 유일무이한 리념임을 뚜렷이 확증해주었고 조국통일을 지지하였다.

성명은 북이 지난해에 악화된 북남관계를 개선하고 조국통일의 전향적국면을 열기 위

해 주동적이며 대범한 조치들을 취하면서 성의있는 노력을 기울였으로써 내외의 커다란 지지와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북남사이에서 대화와 협력의 분위기가 조성되게 된데 대해 언급하였다.

6.15통일시대의 전진을 가로막기 위한 분렬주의세력의 책동이 약발하지만 북남공동선언을 리행하지 않는 한 북남관계개선을 위한 전향적국면을 열기 위하여 더욱 힘차게 투쟁할것이다.

성명은 조선민족이러면 누구나 북남공동선언들을 존중하고 북남관계개선의 길로 나아가야 하며 민족의 화해와 협력을 적극 실현하는것과 함께 현대면 한민족화하여 조국통일운동을 발전시켜나간다고 강조하였다.

## 재중조선인총련합회 부의장 담화 발표

은겨레앞에는 공동사설에서 제시된 《북남공동선언의 기치밑에 온 민족이 단합하여 조국통일을 하루빨리 실현하자!》는 구호를 높이 들고 자주통일운동을 끊임없이 강화발전시켜나가기 위하여 더욱더 열렬히 노력하고 있다. 특히 6.15공동선언이 발표된 후 10년간은 북남공동선언들이 가장 정당한 통일대강이며 《우리 민족끼리》야말로 6.15 통일시대의 민족정신, 유일무이한 리념임을 뚜렷이 확증해주었고 조국통일을 지지하였다.

성명은 북이 지난해에 악화된 북남관계를 개선하고 조국통일의 전향적국면을 열기 위

해 주동적이며 대범한 조치들을 취하면서 성의있는 노력을 기울였으로써 내외의 커다란 지지와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북남사이에서 대화와 협력의 분위기가 조성되게 된데 대해 언급하였다.

6.15통일시대의 전진을 가로막기 위한 내외분렬주의세력의 책동이 약발하였지만 북남공동선언들을 리행하지 않는 한 북남관계개선을 위한 전향적국면을 열기 위하여 더욱더 열렬히 노력하고 있다. 특히 6.15공동선언이 발표된 후 10년간은 북남공동선언들이 가장 정당한 통일대강이며 《우리 민족끼리》야말로 6.15 통일시대의 민족정신, 유일무이한 리념임을 뚜렷이 확증해주었고 조국통일을 지지하였다.

성명은 북이 지난해에 악화된 북남관계를 개선하고 조국통일의 전향적국면을 열기 위

해 주동적이며 대범한 조치들을 취하면서 성의있는 노력을 기울였으로써 내외의 커다란 지지와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북남사이에서 대화와 협력의 분위기가 조성되게 된데 대해 언급하였다.

6.15통일시대의 전진을 가로막기 위한 내외분렬주의세력의 책동이 약발하였지만 북남공동선언들을 리행하지 않는 한 북남관계개선을 위한 전향적국면을 열기 위하여 더욱더 열렬히 노력하고 있다. 특히 6.15공동선언이 발표된 후 10년간은 북남공동선언들이 가장 정당한 통일대강이며 《우리 민족끼리》야말로 6.15 통일시대의 민족정신, 유일무이한 리념임을 뚜렷이 확증해주었고 조국통일을 지지하였다.

성명은 북이 지난해에 악화된 북남관계를 개선하고 조국통일의 전향적국면을 열기 위

해 주동적이며 대범한 조치들을 취하면서 성의있는 노력을 기울였으로써 내외의 커다란 지지와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북남사이에서 대화와 협력의 분위기가 조성되게 된데 대해 언급하였다.

6.15통일시대의 전진을 가로막기 위한 내외분렬주의세력의 책동이 약발하였지만 북남공동선언들을 리행하지 않는 한 북남관계개선을 위한 전향적국면을 열기 위하여 더욱더 열렬히 노력하고 있다. 특히 6.15공동선언이 발표된 후 10년간은 북남공동선언들이 가장 정당한 통일대강이며 《우리 민족끼리》야말로 6.15 통일시대의 민족정신, 유일무이한 리념임을 뚜렷이 확증해주었고 조국통일을 지지하였다.

성명은 북이 지난해에 악화된 북남관계를 개선하고 조국통일의 전향적국면을 열기 위

해 주동적이며 대범한 조치들을 취하면서 성의있는 노력을 기울였으로써 내외의 커다란 지지와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북남사이에서 대화와 협력의 분위기가 조성되게 된데 대해 언급하였다.

6.15통일시대의 전진을 가로막기 위한 내외분렬주의세력의 책동이 약발하였지만 북남공동선언들을 리행하지 않는 한 북남관계개선을 위한 전향적국면을 열기 위하여 더욱더 열렬히 노력하고 있다. 특히 6.15공동선언이 발표된 후 10년간은 북남공동선언들이 가장 정당한 통일대강이며 《우리 민족끼리》야말로 6.15 통일시대의 민족정신, 유일무이한 리념임을 뚜렷이 확증해주었고 조국통일을 지지하였다.

이것은 생생한 력의 권리와 민주주의를 위한 각계층 인민들의 투쟁이 힘차게 벌어졌다. 그들은 한결같이 민족을 무시하고 독재를 일삼는 현 《정권》하에서는 파강한 투쟁만이 당국의 반민민적 행위를 저지시킬수 있다고 하면서 앞으로 투쟁강도를 더 높여나갈 결심 의지를 가다듬었다. 이것은 남조선인민들이 투쟁의 길에 참된 삶과 자유가 있다는 력사의 진리를 생활 체험을 통하여 뼈저리게 절감하였기 때문이다.

남조선에서 인민들은 당국의 반민민적정책으로 하여 인간의 존엄과 자유권을 물론 초보적인 생존권마저 빼앗겨 고통스럽게 살고있다. 거리를 휩쓰는 수백만 실업군, 땅장 생계를 이룰수 없게 아우성치는 인민의 도처에서 피리를 무는 처사자들, 가난한 집 자식으로 태어나 뇌 피어 《죄》로 하여 거리를 방랑하는 수많은 방랑아들...

말그대로 남조선에서 인민의 삶은 여지없이 짓밟히고 있다.

이렇게 인민생활이 만신창

이 되었다면 남조선의 현 집권세력은 해당한 대책을 세우지 않을뿐더러 오히려 생존권을 요구하는 인민들에 대한 탄압운동에 더욱 열을 올리고 있다.

생존권을 요구해나선 철도 근로자들을 대한 파쇼적탄압 운동이 그 대표적실례이다. 알려진것처럼 남조선의 철도 근로자는 부당하게 해고된 노동자들의 복직과 임금문제의 해결 등을 요구해나섰으나 업주측과 당국은 《경제살리기》를 운운하면서 그들의 생존권 요구를 《불법》으로 몰아가 차압이 단합하였다. 그 무순 《법과 원칙》을 떠들며 《강경태도》를 선언한 당국자들을 처사에 힘을 얻은 파쇼파들까지 덩달아 파쇼인민에 미처달리했으며 보수진료들은 그것들대로 파쇼투쟁에 대하여 외곡된 보도를 하면서 사회 여론을 오도하였다.

압박이 있는 곳에 반항이 있고 반항이 있는 곳에 투쟁이 있기 마련이다.

남조선의 철도근로자는 기자회견

이 되었다면 남조선의 현 집권세력은 해당한 대책을 세우지 않을뿐더러 오히려 생존권을 요구하는 인민들에 대한 탄압운동에 더욱 열을 올리고 있다.

생존권을 요구해나선 철도 근로자들을 대한 파쇼적탄압 운동이 그 대표적실례이다. 알려진것처럼 남조선의 철도 근로자는 부당하게 해

